

# 한국어 지시어 ‘이’, ‘그’, ‘저’와 일본어 지시어 ‘こ’, ‘そ’, ‘あ’의 비교 · 대조: 화시적 지시에 한하여

서 나 래\*

## I. 서론

신지연(1998: 14)에 따르면 지시어는 언어적인 대상이든 비언어적인 대상이든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밖에는 실질적 내용이 없는 어휘류이다.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는 표현은 다시 다른 대상을 대신한다는 뜻으로도 바뀔 수 있어, 흔히 ‘대용어’라고도 불린다. 한국어의 지시어는 지시 관형사로 불리는 ‘이, 그, 저’와 다른 접미사나 어휘들과의 결합형으로 나타난다. 지시사 ‘이, 그, 저’가 이용된 용언의 표현을 ‘지시용언’이라고 부르고, 이를 포함해 지시사 ‘이, 그, 저’를 포함한 언어 표현들을 총칭하여 ‘지시어’라고 부르기로 한다(신지연, 1998: 14).

지시어는 화시적 지시, 문맥적 지시, 상념적 지시 기능을 한다. 우선 ‘화시적 지시’에서 ‘화시’는 조용보다 기본적인 개념이다. 조용은 지시 대상이 담화 세계에 있어야 하지만, 화시는 어떤 실재를 지시하기 위하여 그것을 담화 세계로 넣어주는 수단이다(양명희, 1998: 29). 결국 화시적 지시는 발화 현장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장경희, 1980). 문맥 지시는 화자가 문맥에 나타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을 말하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졸업

며,<sup>1)</sup> 상념 지시는 화자와 청자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장경희, 1980).

한편 한국어와 일본어의 지시어는 삼원체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국어 지시어 ‘이’, ‘그’, ‘저’는 각각 일본어 지시어 ‘こ’, ‘そ’, ‘あ’와 대응되며, 각 지시어들은 화·청자를 중심으로 한 영역과 지시 대상의 소재에 따라 분화되었다. 화자와 물리적·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대상, 즉 화자의 영역에 속하는 대상은 ‘이’, 청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그’, 화·청자의 영역 밖에 있는 것에는 ‘저’를 사용하는데(박선희, 2008: 361), 화시적 지시에서의 이와 같은 지시어의 분화가 문맥적, 상념적 지시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지시어와 일본어 지시어가 대상과 화·청자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만을 기준으로 일대일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강계천(1992), 모리모토(2009) 등에 의해 한일양국어 지시어의 비교·대조가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지시어가 화시적 지시로 쓰였을 때 대립적 영역<sup>2)</sup>에서 한일양국어가 갖는 지시어의 공통점에만 주목하고 있어 차이점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립적 영역에서 양국어 지시어의 차이를 규명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융합적 영역에서의 양국어 지시어를 비교·대조하고, 양국어가 영역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살펴볼 것이다. 단, 본고에서는 지시어의 화시적 지시, 문맥 지시, 상념 지시 등의 기능 중 화시 기능에 한하여 연구할 것이다.

양국어 지시어를 화시적 지시 기능을 중심으로 비교·대조하기 위해 한국 소설, 일본 시나리오 등을 참고로 하여, 두 언어 지시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한국어 지시어 예문은 최동호·김윤식(1998)의 《소설어 사

1) 장경희(1980)에서는 기호적 지시라는 용어를 썼으며, 학자에 따라 조용적 지시, 문맥 대용, 문맥적 조용이라 하기도 한다(신지연, 1998: 13).

2) 金水 敏·田窪行則(1990)에서 쓰인 용어로, 화시적 지시로 지시어가 쓰일 때 화·청자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대립형’이라고 하며, 화·청자가 같은 위치에 있거나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융합형’이라고 한다.

전》을 참고하였다. 이 책에서 지시어를 검색하고, 지시어가 쓰인 원문 소설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여 한국어 예문을 선별했다. 일본어 지시어는 대부분의 경우 일본 드라마 시나리오<sup>3)</sup>를 참고로 하였다. 이는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 텍스트를 참고함으로써 지시어의 화시적 기능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한국어와의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본고에서는 대립적 영역과 융합적 영역을 구분하여 한국어 지시어와 일본어 지시어를 비교·대조함으로써 두 언어 지시어의 차이를 밝힐 것이다. 단, 지시어의 화시 지시 기능, 문맥 지시 기능, 상념 지시 기능 중 화시 지시 기능만을 다루도록 할 것이다. 지시어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 공간 가리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두 언어 지시어의 화시 지시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문맥 지시, 상념 지시 등 다른 기능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어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두 언어의 지시어 의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각 언어 지시어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대립적 영역

### 1. 한국어

대립적 영역<sup>4)</sup>은 화자와 청자가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경우이다. 한국어에서 대립적 영역의 경우 삼원체계가 유지되어, 화자와 가까운 대상은 ‘이’를, 청자와 가까운 대상은 ‘그’를, 화·청자와 먼 대상은 ‘저’를 통해 나타난다.

- (1) “추운데 이리 와 앉으십시오.” 석이는 의자를 끌어당겨 난롯가에 놓는다. “날 씨도 고치걸이 맵다.” 의자에 앉은 봉춘네는 문을 밀고 들어왔다. 〈박경리, 토

3) 伴一彦(Ban Kazuhiko) 작가의 작품 6편(각 작품의 1화부터 최종화까지)을 대상으로 하였다.

4) 대립적 영역과 융합적 영역에 대해서는 金水敏·田窪行則(1990), 모리모토(2009)의 구분법을 따랐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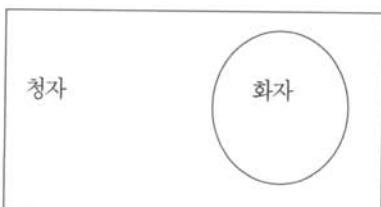
- (2) 부역꾼들은 아무데서나 나무를 툭툭 잘라넘겼다. 그들은 산주들한테 양값음을 하는 심사도 있었다. (중략) “이놈아. 그것은 선산 지키는 도래솔이다. 나눔 눈구먹에는 도래솔도 안 뵐나?” 〈송기숙, 녹두장군4〉
- (3) 늙은이가 방에서 나오는 걱정이를 보고 “이애, 저것을 윗방에 좀 들여놓아라.” 하고 봉당에 놓인 먹대기를 가리키니 걱정이는 “그려지요”하고 쉽사리 먹대기 를 들여놓았다. 〈홍명희, 임걱정〉

(1)에서는 화자인 ‘석이’가 청자인 ‘봉춘네’에게 자신이 있는 공간으로 오라고 권하고 있다. 이때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이’를 통해 나타냈다. (2)의 ‘그것’은 부역꾼들이 잘라 넘긴 ‘나무’를 말한다. 화자가 청자의 영역의 ‘나무’를 가리키고자 했으므로 ‘그’를 통해 표현했다. (3)은 화자인 ‘늙은이’가 방에서 나오는 ‘걱정이’를 발견하는 장면이다. 화자인 ‘늙은이’와 청자인 ‘걱정이’ 사이에 거리가 있어, 대립적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때 화·청자 모두와 먼 대상인 ‘먹대기’를 ‘저것’으로 나타냈다.

이때 지시어 ‘이’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어에서 화자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범위가 온전히 화자를 중심으로 정해진다. 즉 화·청자 사이의 공간과 상관 없이, 화자의 영역은 화자 자신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 (4) “이리 와 이것 좀 파게.” 그는 어쓴 위풍을 보이며 이렇게 분부하였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 손을 텔며 뒤로 물러선다. 수재는 군말 없이 고분하였다. 〈김유정, 금 따는 콩밭〉

(4)의 ‘이것’은 화·청자 사이의 공간 밖에 위치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것’과 청자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



- 원쪽은 화·청자가 대립적 영역에서 대화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 원 안은 가상의 화자의 영역으로, 원의 크기는 사람/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림 1〉 대립적 영역에서의 한국어 화시적 지시

다. ‘이것’이 화·청자가 공유하는 공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 화자와의 거리는 가깝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서 지시어가 화시적 지시로 사용될 경우, 지시어 ‘이’의 선택 기준은 ‘화자와의 거리’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2. 일본어

일본어에서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대립적 영역에서 삼원체계가 유지된다. 화자의 영역의 대상은 ‘こ’, 청자의 영역의 대상은 ‘そ’를 통해 나타내고, 화·청자와 먼 대상을 표현할 때에는 ‘あ’를 사용한다.

- (5) 社員 「だいたいその値段でシモキタは無理ですよ」  
麗 「探して下さい」  
社員 「これ(検索端末)で出ないものはないわけですし……」〈東京全力少女 1話〉  
회사원 “대체로 그 값에 시모키타은 무리예요.”  
레이 “찾아 주세요.”  
회사원 “이것(검색 단말)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없는 셈이고…….”〈동경전력소녀 1화〉<sup>5)</sup>
- (6) 卓也 「その恰好で買い物に行ったのか!?’  
麗 「(サラダの用意をしながら) 全然平気だった。さすが東京」〈東京全力少女 2話〉  
타쿠이오 “그 꿀로 쇼핑 갔었어?”  
레이 “(샐러드의 준비를 하면서) 팬찮았어. 역시 도쿄는 달라.”〈동경전력소녀 2화〉
- (7) 高村刑事 「……今朝、おかしな夢を見ました」  
藤子 「……？」  
高村刑事 「火田七瀬、岩渕恒介、ヘンリー、広瀬朗。あの四人に追い詰められる夢です。自分でも驚いたが……私は……彼らが怖いんですよ」〈七瀬ふたたび 7話〉  
타카무라 형사 “……오늘 아침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후지코 “……?”  
타카무라 형사 “히타 나나세, 이와부치 코스케, 헨리, 히로세 아키라. 저 4명에 몰리는 꿈이요. 스스로도 놀랐지만……나는……그들이 두렵다고 요.”〈나나세 다시 한 번 7화〉

5) 예문 (5)를 포함하여 본고의 모든 일본어 예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필자 번역임.

(5)에서는 화자인 회사원이 자신 앞에 놓여있는 검색 단말기를 ‘これ’로 표현하고 있다. 즉, 화자의 영역에 있는 대상에 대해 ‘これ’로 언급한 것이다. (6)에서는 화자인 타쿠이오가 청자인 레이의 걸모양새를 ‘その恰好’이라고 말한다. 청자의 영역의 대상을 나타낼 때에는 일본어 지시어 ‘そ’를 쓴 것이다. (7)에서는 발화 당시 화·청자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 ‘あの四人’이라고 말한다. 즉 화·청자와 떨어져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본어 지시어 ‘あ’를 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지시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본어에서는 지시어 ‘あ’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8) 入つてくる子供たち。

耕 作 「(イライラと) 仕事中だぞ」

涼 「パパ、あの人追い出して」

耕 作 「日高くんか?」〈パパは年中苦労する 11話〉

들어오고 있는 아이들。

코사쿠 “귀찮아하며) 업무 중이잖아.”

료 “아빠, 이 사람 좀 내보내.”

코사쿠 “히다카 군?”〈아빠는 연중 고생한다 11화〉

(9) A: じゃあ、市村さん、先月行われたパソコンに関するお客様アンケートの結果を報告してください。

B: はい。それでこのグラフをご覧ください。(米田隆介・重野美枝・藤井和子・池田広子, 2011: 6)

A: 자, 이치무라 씨. 지난달 취급된 개인용 컴퓨터에 관한 고객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B: 네. 이 그래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의 경우 화자가 청자가 있는 공간에 들어와서는, 화자 옆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한국어 번역의 경우 그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장면의 특성상 화자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 화자의 옆, 즉 화자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어의 경우에는 ‘の人’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이 화자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자가 대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청자가 화자의 발언 이후 “히다카”

군?”이라고 되묻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자의 영역에 속해있더라도 한국어 지시어 ‘이’에 대응되는 일본어 지시어 ‘こ’를 쓸 수 없음을 뜻한다.

반면에 (9)의 예를 보면, B가 A의 요청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때 B는 B의 발화 이전에 이미 A가 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래프를 ‘이 그래프’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화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8') 入つてくる子供たち。

耕 作 「(イライラと) 仕事中だぞ」

涼 「パパ、この人追い出して」

耕 作 「日高くんか?」〈パパは年中苦労する 11話〉

들어오고 있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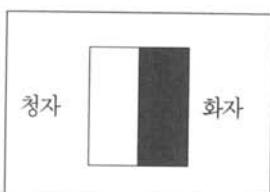
코사쿠 “(귀찮아하며) 업무 중이잖아.”

료 “아빠, 이 사람 좀 내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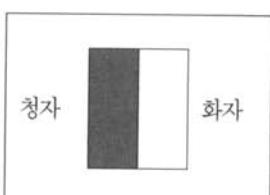
코사쿠 “ひだか グン?”〈아빠는 연중 고생한다 11화〉

(8')은 예문(8)에서 ‘あの人’ 부분을 ‘この人’로 수정한 것이다. ‘あの人’을 ‘この人’으로 수정한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지시어의 사용에는 심리적 거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あの人’ 대신에 ‘この人’를 사용하였을 경우, 청자인 코사쿠가 “ひだか グン?”이라고 되묻는 것의 뉘앙스가 달라진다. (8)의 경우에는 청자가 ‘이 사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질문을 하는 것이었던 반면, (8')은 청자가 ‘이 사람’이 히다카 군일 것을 예상하며 확인의 의미로 되묻는 것이다. 즉, ‘あの人’ 대신에 ‘この人’이 사용되었다면, 화자의 판단 하에서 청자가 대상, 여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일본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대립적 영역에서 지시어를 사용할 때, 화·청자 사이의 공간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즉 화·청자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지시어 ‘こ’를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시각화해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대립적 영역에서의 일본어 화시적 지시 1 – 화자의 영역



〈그림 3〉 대립적 영역에서의 일본어 화시적 지시 2 – 청자의 영역

〈그림 2〉에서는 〈그림 1〉과 비교했을 때 화자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범위가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화자 자신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영역을 인식하는 반면, 일본어에서는 화·청자 사이에 둘이 공유하고 있는 둘 사이의 공간에 한하여, 화자 자신과 가까운 거리의 부분만 자신의 영역이라고 인식한다. 이는 반대의 경우, 즉 청자의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에서는 지시어 ‘이’, ‘그’로 표현되는 대상에 대해서, 일본어에서는 지시어 ‘あ’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두 언어에서 화자가 자신의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어에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간만이 ‘こ’나 ‘そ’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화자 혹은 청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화자와 청자 사이에 있지 않다면, 화·청자 모두와 면 대상으로 인식되어 ‘あ’로 표현된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 화자와 가까이 있는 대상이라면 청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로 표현되고, 청자와 가까이 있는 대상이라면 청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그’로 표현된다.

- 왼쪽은 화·청자가 대립적 영역에서 대화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 회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일본어에서 화자가 자신의 범위로 인식하는 범위이며, 이는 사람/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왼쪽은 화·청자가 대립적 영역에서 대화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 회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일본어에서 **청자**가 자신의 범위로 인식하는 범위이며, 이는 사람/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III. 융합적 영역

#### 1. 한국어

융합적 영역<sup>6)</sup>은 어느 공간에서 화자와 청자가 같은 위치에 있거나 청자가 없는 경우이다. 융합적 영역에서 한국어의 지시어는 이원체계이다. 대상과 화·청자 간의 거리가 근거리일 때에는 ‘이’를 사용하고, 대상과 화·청자의 거리가 멀 때에는 ‘저’를 사용한다.

- (10) “(상략) 이 논 닷 마지기를 우리한테도 지루 얻어 주려구, 담배씨루 뒤웅박을  
파려고 드는 제 형하구 썹을 다 했으니까요.” 〈심훈, 상록수〉  
(11) “잘됐지! 저것 좀 보게나.” 풍현은 벼이삭을 가리키고 달려가더니 벼이삭을  
어루만지며 불타산을 명하니 노려보았다. 〈강경애, 인간문재, 창비, p.127-128〉

(10)에서는 화·청자가 ‘우리’라는 단어로 함께 표현되어, 발화된 문장에서는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화·청자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로, 화·청자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상인 ‘논 닷 마지기’는 ‘이’의 수식을 받고 있다. (11)에서는 화·청자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화·청자 모두와 멀리 있는 대상인 ‘벼이삭’을 ‘저것’으로 표현했다.

융합적 영역에서는 지시어 ‘그’는 사용되지 않는다.

- (12) (화·청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화자가 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대상을 가리키며) 우리 같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이것/\*그것) 좀 봐봐.  
(13) (화·청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화자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대상을 가리키며) 옆 테이블 위에 있는 (\*그것/저것) 좀 봐봐.

---

6) 2번 주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립적 영역과 융합적 영역에 대해서는 모리모토 (2009)의 구분법을 따랐다.

(12)와 (13)에서는 화·청자가 같은 위치에 있는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화·청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12)에서와 같이 화·청자 모두 근거리에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에는 지시어 ‘이’만 사용가능하며, ‘그’의 사용은 어색하다. (13)에서 또한 화·청자와 떨어져 있는 대상, 즉 이 경우에는 다른 테이블의 물체를 가리킬 때 ‘그’는 역시 사용할 수 없으며 ‘저’만 올 수 있다. (13)의 상황에서는 다른 테이블이 화·청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부터 중거리에 있는지, 장거리에 있는지 상관없이 ‘저’만 올 수 있다.

## 2. 일본어

일본어 지시어는 한국어 지시어와 달리 융합적 영역에서 삼원체계가 유지된다. 일본어에서는 대상과 화·청자 간의 거리가 근거리일 때에는 ‘근’을, 중거리일 때에는 ‘ぞ’를, 원거리일 때에는 ‘あ’를 사용한다.

- (14) 京 子 「これじゃないですか？」  
 シケタ、画面を覗き込む。  
 涼 介 「(見て) 豚の角煮かあ」  
 シケタ「そうだ、これだ！ 食べるぞ」〈噴いタン2 3話〉  
 쿄코 “이거 아닌가요?”  
 시케타, 화면을 들여다 본다.  
 데스케 “(보고) 돼지고기인가?”  
 시케타 “그렇네, 이거네! 먹자.”〈식탐정2 3화〉
- (15) 卓也とさゆり、しばし見合う。  
 卓 也 「……久しぶり」  
 麗 「えーと、なんでこうなつてるかというと……」  
 さゆり 「麗」帰るわよ」  
 麗 「ちょっと。15年ぶりなんでしょ？ 挨拶ぐらいしようよ」  
 さゆり 「(無視) 荷物まとめなさい」  
 麗 「お父さん……」  
 卓也、喋ろうとすると——  
 さゆり「麗！ その男と口聞かないで！」〈東京全力少女 7話〉  
 타쿠야와 사유리, 잠시 만나다.

타쿠이오 “……오래간만.”  
레이 “아니 왜 이렇게 된 것이냐면…….”  
사유리 “레이, 돌아가자.”  
레이 “좀. 15년 만이지? 인사 정도 해.”  
사유리 “(무시)짐 챙겨.”  
레이 “아버지…….”  
타쿠야, 말하려고 하면  
사유리 “레이! (저/그)<sup>7)</sup> 남자와 말 듣지 마!” 〈동경전력소녀 7화〉

(16) 七瀬が客席から戻ってきた恒介を捕まえる。

恒介「なんだよ」  
七瀬「(声を潜め) その人、カードを透視しました」  
恒介、七瀬の視線を追い、西尾を見る。  
そして怪訝な表情になる。〈七瀬ふたたび 3話〉  
나나세가 객석에서 돌아온 코스케를 잡는다.  
코스케 “뭐야.”  
나나세 “목소리를 낮춰! 저 사람, 카드를 투시했어요.”  
항개, 나나세의 시선을 쫓았다, 나시오를 본다.  
그리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나나세 다시 한 번 3화〉

(14)에서는 발화에 참여하고 있는 ‘쿄코’와 ‘시게타’가 특정 대상에 대해 ‘これ’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두 인물 사이의 거리가 없는 융합적 영역의 상황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융합적 영역일 때 화·청자와 근거리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こ’를 통해 표현함을 보여준다. (15)에서는 사유리가 함께 있는 레이에게 타쿠야를 가리킬 때 ‘その男’라고 말한다. 사유리가 레이와 함께 있다는 것에서 융합적 영역임을 알 수 있고, 화·청자와 중거리에 있는 대상에 대해 언급하며 ‘そ’를 씀을 알 수 있다. (16)은 나나세가 객석으로 돌아와 같이 있는 코스케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 ‘あの人’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화·청자 간의 거리가 없는 융합적 영역이며, 이때 원거리 대

7) 레이와 사유리 사이에 거리가 있고, '(저/그) 남자'인 타쿠야가 레이의 근처에 있다면, 타쿠야가 청자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남자'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드라마 상에서 레이와 사유리가 함께 있으며, 타쿠야는 이들과 중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その男'는 융합적 영역에서 화·청자와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로, 3.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 남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상에 대해서는 ‘あ’로 표현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15)의 중거리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 (16)의 화·청자와 장거리에 있는 대상과 구분도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중거리와 장거리의 구분을 하기 위해 필자가 나고야대학 수학 시절 사용했던 책을 발췌했다.

Usage I-B. “そ” is also used to refer to what is not so near and not far from both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例) [タクシーで]

A: そのかどで止めてください。

B: ええと、そのかどと言いますと……。

(例) [택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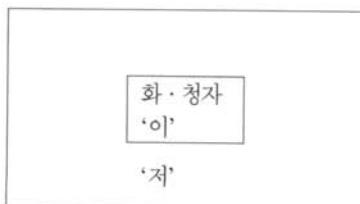
A: 저 모퉁이에서 세워주세요.

B: 어, 저 모퉁이 말씀이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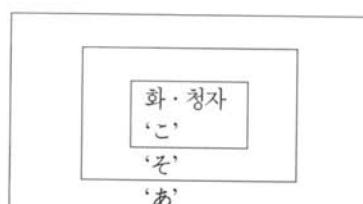
[Note] Generally speaking, (중략). On the other hand, when the speaker feels that he/she is close psychologically or locationally to the listener, “そ” of the Usage I-B is used.(밀줄·예문 번역은 필자, 名古屋大学日本語教育研究グループ, 2004: 206-207)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청자와 물리적·심리적으로 가까울 때, 즉 융합적 영역일 때 대상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다고 판단하면 ‘そ’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대상과 화·청자 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화자임으로 그 기준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융합적 영역에서 한국어의 화시적 지시와 일본어의 화시적 지시를 시각화하면 각각 〈그림 4〉와 〈그림 5〉와 같다(강계천, 1992: 53).



〈그림 4〉 융합적 영역에서  
한국어의 화시적 지시



〈그림 5〉 융합적 영역에서  
일본어의 화시적 지시

따라서 한국어와 일본어 지시어 모두 화 · 청자와 대상이 근거리일 때에는 각각 ‘이’, ‘こ’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일본어의 경우 대상과 화 · 청자 간의 거리가 중거리일 때에는 ‘そ’를, 원거리일 때에는 ‘あ’를 쓰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중거리 · 원거리 구분 없이 모두 ‘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IV. 양어의 영역 인식이 다를 경우

##### 1. 한국어

지시어가 화시적 기능으로 쓰일 때, 한국어에서 융합적 영역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에서는 대립적 영역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지시어 사용에 있어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영역 인식이 다른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7) “이눔이 왜 이래! 다릴 꺾어 놀라.”하고 넌이 고개를 돌리면, “나무 판 돈 뭐 했어. 또 술 처먹었지?” 이렇게 제법 탕탕 호령하였다. 〈김유정, 안해〉
- (18) “이거 자꾸 왜 이러슈 이형. 우리는 뭐 바지저고린 줄 아슈. 사건 기록이야 법원으로 넘어갔고 의견서 뿐인데 그걸 보고 말고가 뭐 있소. (후략)” 〈전진우, 칼과 침〉

(17)에서 화자는 청자의 행동에 대해 “왜 이래!!”라고 발화함으로써 청자의 행동을 ‘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18)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자의 행동에 대해 화자는 ‘이거’라고 말한다. 이 두 사례는 한국어에서 청자의 행동이 ‘이’로 지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한국어 화자는 청자의 행동도 융합적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모리모토, 2009: 98).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청자의 행동이 화자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 (19) “말을 해 보아, 말을. 찍소같이 그렇게 베티고 앉아 있지만 말고. 네가 아직

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최명희, 혼불〉

(19)에서는 청자의 베티고 앉아 있는 행동을 ‘그렇게’라고 말했다. 청자의 영역과 화자의 영역을 구분하여, 청자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즉 2.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립적 영역에서 청자의 영역에 대상에 대해서는 ‘그’를 사용하여 지시했다.

결국 한국어에서 청자의 행동이 ‘이’로 지시되는 경우는 화자가 특정 상황을 화·청자 간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융합적 영역으로 인식할 때이다. 청자의 특정 행동이 화자가 인식하기에 화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때, 화자가 그 상황을 융합적 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17)의 화자는 청자의 행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꺾어놀라.”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협박하고 있다. 그만큼 화자는 청자의 행동을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청자의 행동이 화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줌을 추론 가능하다. (18)에서 또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상황을 알고 있음을 강조하며 청자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이에 반해 (19)은 청자의 행동에 대한 화자의 반발감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화자와 청자의 행동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지시어가 화시적 기능으로 쓰일 때, 청자의 행동을 ‘이’를 통해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청자의 행동이 화자의 상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의 행위가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될 때이다.

## 2. 일본어

IV-1에서와 달리 일본어에서는 같은 상황을 융합적 영역이 아닌 대립적 영역으로 인식하여, 화자의 행동에 대해 ‘이’에 대응되는 지시어인 ‘こ’ 대신에, 지시어 ‘そ’를 사용한다.

- (20) 黎 純 「何度もうまくいかないと思うけどね」  
           「ハウウンテイ・ハンターやろうって言い出したの、先輩ですよ。なんでそんなにテンション低いんですか」

- 黎 「だって……」 〈HUNTER—その女たち 賞金稼ぎ一 2話〉  
레이 “몇 번이나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준 “바운티헌터하고 했던 건 선배예요. 왜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아요?”  
레이 “그게…….” 〈헌터-그 여자들, 상금벌이 2화〉
- (21) 重 村 「ワソコ、頑張るな」  
門 馬 「(舌打ちして) つたく、その言い方、そつくりだな」 〈デカワソコ 6話〉  
시게무라 “강아지, 열심히 해라.”  
몬마 “(혀를 차고) 정말이지, 그 말투, 똑같구나.” 〈데카완코 6화〉

(20)과 (21) 모두 화자는 청자의 행동을 지시어 ‘そ’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20)에서는 청자인 레이의 안 좋은 반응에 대해서 화자인 준은 ‘そんなに’를 통해 말한다. (21)에서는 청자인 시게무라의 말투에 대해 화자인 몬마는 ‘その’라고 가리킨다. 이는 일본어에서는 화·청자의 영역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어에서는 청자의 행동이 화자에 영향을 주더라도 청자의 영역은 화자의 영역과 다른 영역으로 분리되어 인식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일본어에서는 융합적 영역이 아닌 대립적 영역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한국어 공간 지시가 융합적 영역에서 쓰이는데도, 일본어 공간 지시는 대립적 영역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청자의 행위가 한국어에서는 ‘이’로 지시되는 반면, 일본어에서는 ‘そ’로 지시된다. 한국어 화자는 상대방의 행위가 일정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 상대방의 행위를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한다. 때문에 상대의 행위를 융합적 영역으로 판단하는 데 비해 일본어 화자는 화·청자 간의 거리를 두고 청자의 행위를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행위를 대립적 영역으로만 판단한다.

## V. 결론

한국어와 일본어의 지시어는 삼원체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국어 지시어 ‘이’, ‘그’, ‘저’는 각각 일본어 지시어 ‘こ’, ‘そ’, ‘あ’와 대응되며, 각

지시어들은 화자에 가까운 대상, 청자에 가까운 대상, 화·청자 모두와 먼 대상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어 지시어와 일본어 지시어가 대상과 화·청자 간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일대일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대립적 영역과 융합적 영역을 구분하여 한국어 지시어와 일본어 지시어를 비교·대조하였다. 단, 지시어의 화시적 지시, 문맥 지시, 상념 지시 중 화시 지시만을 다루었다.

대립적 영역은 화자와 청자가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경우이다. 대립적 영역의 경우, 두 언어 모두 삼원체계가 유지되어, 화자와 가까운 대상은 ‘이/그’를, 청자와 가까운 대상은 ‘그/ぞ’를, 화·청자와 먼 대상은 ‘저/あ’를 통해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지시어 ‘이/그’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본어에서는 지시어 ‘あ’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두 언어에서 화자가 자신의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어에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간만이 ‘그/ぞ’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화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화자와 청자 사이에 있지 않다면, 화·청자 모두와 먼 대상으로 인식되어 ‘あ’로 표현된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 화자와 가까이 있는 대상이라면 청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이’로, 청자와 가까이 있는 대상이라면 ‘그’로 표현된다.

융합적 영역은 어느 공간에서 화자와 청자가 같은 위치에 있거나 청자가 없는 경우이다. 융합적 영역의 경우, 한국어 지시어는 이원체계이나 일본어 지시어는 삼원체계라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 지시어 모두 화·청자와 대상이 근거리일 때에는 각각 ‘이’, ‘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일본어의 경우 대상과 화·청자 간의 거리가 중거리일 때에는 ‘ぞ’를, 원거리일 때에는 ‘あ’를 쓰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중거리·원거리 구분 없이 모두 ‘저’를 사용한다.

한국어에서 화시 지시가 융합적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일본어에서는 대립적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청자의 행위가 한국어에서는 ‘이’로 지시되는 반면, 일본어에서는 ‘ぞ’로 지시된다. 한국어 화자는 상대방의 행위를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적 영역으로 판단하는 데 비해 일본어 화자는 화·청자 간의 거리를 두고 청자의 행위를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대립적 영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삼원체계의 지시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차이점도 명백히 존재한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대립적 영역에서 양국 지시어의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고는 양국 지시어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화시 지시만에 한정하여 연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지시어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 공간 가리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두 언어 지시어의 공간 지시 기능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문맥 지시, 상념 지시 등 다른 기능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어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두 언어의 지시어 의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각 언어 지시어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 지시어의 화시 지시를 비교·대조한 것을 토대로 다른 기능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지시어의 의미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향후 과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강계천(1992), 「韓・日兩國語의 指示語 對照 比較」, 『일본어교육연구』 8권,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모리모토 가즈히코(2009), 「한·일 양국어의 지시어에 관한 대조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30호, 한국어의미학회.
- 박선희(2008), 「학습자의 언어 인식 조성을 통한 한국어 지시어 교수 방안」, 『외국어 교육』 제15권 3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신지연(1998), 『국어 지시용언 연구』, 국어학회.
- 양명희(1998),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국어학회.
- 장경희(1980), 「指示語 ‘이’, 그, 저’의 意味 分析」, 『語學研究』 第16卷 2號,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 최동호·김윤식(1998), 『소설어 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 2. 국외 문헌

- 金水 敏・田窪行則(1990), ‘談話管理理論から見た日本語の指示詞’, 認知科学の發展, 講談社.
- 名古屋大学日本語教育研究グループ(2004), 《現代日本コース中級》, 岩坂泰信.
- 米田隆介・重野美枝・藤井和子・池田広子(2011), 《商談のための日本語》,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伴 一彦(2012), 《東京全力少女》, 日本テレビ.
- \_\_\_\_\_ (2012), 《HUNTER一その女たち' 賞金稼ぎー》, 関西テレビ.
- \_\_\_\_\_ (2011), 《デカワシコ》, 日本テレビ.
- \_\_\_\_\_ (2008), 《七瀬ふたたび》, NHK.
- \_\_\_\_\_ (2007), 《喰いタン2》, 日本テレビ.
- \_\_\_\_\_ (1988), 《パパは年中苦労する》, TBS.